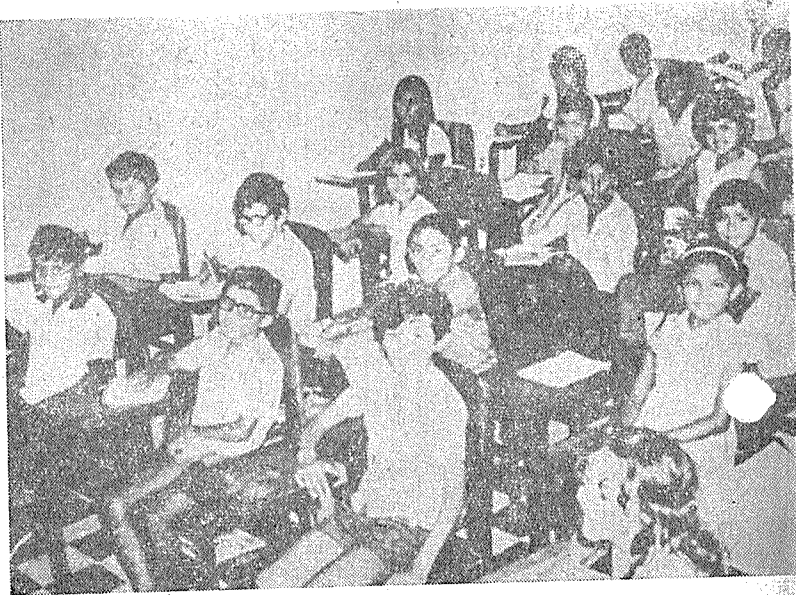


테레비는 사고능력을 떨어트린다



이 총명한 어린이들의 머리가 TV를 보면 정말 나빠질가. 앞으로는 교실에서도 TV로 공부를 하게 된다는데……



눈과 귀를 해치는 괴물

오늘날에는 전국 방방곡곡에 테레비안테나가 우뚝 우뚝 솟아있다. 아마 공식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합하면 약 200만대가 될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이후 농촌이나 어촌에서 테레비 보급률은 놀랄만하다는 신문 보도가 있다.

테레비의 빛과 소리때문에 우리들 건강

에 미치는 영향은 눈과 귀에 대한 직접적인 작용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간접적인 영향도 매우 큰 바 있다.

테레비는 동일평면이므로 눈의 원근조절이 되지 않는다. 눈의 조절근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장기간 보고 있으면 근육이 피곤해져 움직이지 않게된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안정피로(眼精疲勞)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소리의 강도는 70폰 이상이 되면 생각이나 일의 능률을 떨어트리게 된다. 독일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소음은 사고의 살인자라고 일찍 말한 일이 있다. 인간의 청각감도는 주위가 조용하면 시끄러울 때의 칠배 정도에 이른다.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빛소리가 밤에는 빛소리 때문에 잠이 깰

수도 있다. 라디오나 텔레비의 소리는 밤에 방 안에서 나게 된다. 깊은 밤중의 방송음악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잠정을 억누르고 정신을 피로하게 한다. 특히 한집에 텔레비가 한대밖에 없다면 아이들이나 어른간에 찬넬쟁탈전이 벌어져 인간관계를 나쁘게 하고 각자의 체내활동량을 어지럽혀 현대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긴장에서 오는 요통

미국에서는 텔레비요통(腰痛)이라는 것을 유행시키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한해 동안에 2천만명이나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의사를 찾는다 고 한다.

이것은 텔레비를 오래동안 보는데서 생긴 것이 밝혀졌다. 요통은 정신긴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정신긴장이 계속되면 척추에 붙어있는 근육이 수축되어 경련을 일으키고 아픔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오래동안 부자연한 자세를 하여 정신긴장이나 감정압박을 계속해도 생기는데 먼저 근육의 경련을 풀어 주기 위해 가벼운 맛사지, 근이완제 온열요법 등이 효과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텔레비를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라디오나 텔레비는 인간의 두뇌활동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방송내용이 계속적이고 대량인면서도 단편적이라는 점에서 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생기는 문제는 정보와 지식의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것이다. 논리적인 사고는 어렵게 하고 스윗치를 넣으면 보고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머리를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결과 보기 싫은 것까지 보고 듣게 되므로 비판성을 잃고 인간의 사고능력을 요구하지 않아 정신발달과 인간형성을 제하시킨다.

집밖으로 한걸음만 내밀어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도시에서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텔레비를 보고 노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라고 하겠다.

인간의 대뇌는 150억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중에는 본능적인 뇌와 이성적인 뇌가 있는데 본능적인 뇌는 보고 듣는데 따라 신경회로를 증가시켜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때문에 국민의 백치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 회복 운동은 텔레비안보기 운동으로

텔레비는 스트레스해소와 레크레이션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피수, 우주인, 마녀, 과자, 술, 약, 성적내용물의 방송이나 선전광고내용은 듣는 사람에게 오락적인 레크레이션의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밖에 쇼, 디스크자키, 메로드라마는 청소년이나 주부들의 욕구불만을 틈타 그 내용을 흥미분위로 저하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부부싸움, 이혼, 탈선행위, 범죄 등에 대한 충동적인 행위를 유도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건강하고 이성적인 인간회복을 위해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번은 라디오나 텔레비를 보고 듣지 않는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圖 기생충 박멸 표어

청정채소 보급하여 기생충을 예방하자

—한국기생충박멸협회—